

# 문항카드(인문계열)

## [문제 1]

###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경제
	핵심개념 및 용어	경제 성장, 소득 분배, 불평등, 인적 자본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 2. 문항 및 제시문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제 성장은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득이 동일한 크기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개인 간, 계층 간 소득 격차는 축소될 수도 있고 반대로 확대될 수도 있다.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 소득 불평등이 20세기 전반기에는 완화되었다가 20세기 후반기에는 심화되었다. 역사적 추세의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관찰을 배경으로, 최근 들어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 종래의 견해는 성과에 따라 보상에 차등을 두어야 열심히 일할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불평등의 심화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건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의 실증 연구에 기초하여 최근에는 불평등한 소득 분배가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 견해의 설득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성장의 동력 가운데 하나인 ‘인적 자본’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히는 연구는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적 자본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인간에 축적되는 생산적 자원이다. 새로운 견해를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리고 교육 활동의 속성상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기회가 소수에 편중되지 않고 다수에게 확산될수록 인적 자본의 형성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를 기초로 이들은 분배가 불평등할수록 빈곤층의 인적 자본 투자가 제한됨에 따라 경제 전체적으로도 인적 자본 형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간단한 예를 통해 이 점을 살펴보자. 가상의 국민 경제가 네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의 소득을 가난한 사람부터 나열하면 (1, 2, 8, 9)와 같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자.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각자 3만큼의 고정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빈곤층은 금융 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국민 경제 전체의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6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런데 이제 국민 소득은 20으로 동일한 가운데 소득 분배가 (2, 4, 6, 8)과 같이 더욱 평등하게 바뀌면 인적 자본에 대한 총 투자는 9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불평등의 완화는 분배 정의의 실현뿐만 아니라 인적 자본 투자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1-1. ㉠을 근거로 할 때 ㉡에 의하면 20세기 중엽과 20세기 말엽의 경제 성장 속도가 어떠할지를 추론하시오. 단, 다른 모든 조건은 같다고 가정한다. (60자 이내) [20점]

---

---

1-2. <보기>는 윗글을 읽고 갑, 을, 병이 나눈 대화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보기>

갑 : 마지막 문단의 예는 너무 작위적인 것 같아. 내가 다른 예를 들어 볼게. 가령 인적 자본에 투자하기 위한 비용이 각자에게 3이 아니라 7이라면 소득 분배가 (1, 2, 8, 9)인 경우 총 투자가 (ㄱ) 인 반면, 소득 분배가 (2, 4, 6, 8)로 바뀌면 총 투자가 (ㄴ) 이(가) 되어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

을 : 그렇지만 네가 말한 것처럼 비용 부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이 교육을 못 받는 것도 실제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아?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감안하면 7이라는 교육비용 가정은 지나친 것 같아. 오히려 윗글에서 (ㄷ) (라)고 가정한 것에 더 주목해야 해. 그 가정을 다르게 바꾸면 빈곤층도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있으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 꼭 불평등 해소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거든.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으로 충분해지는 것이지.

병 : 금융 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그보다는 교육비용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공적 교육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가 교육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듯해. ㉢ 그래야만 경제 성장이 초래하는 불평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① 빈 칸 (ㄱ)과 (ㄴ)에 들어갈 숫자를 적으시오.

(ㄱ) \_\_\_\_\_ (ㄴ) \_\_\_\_\_

② 빈 칸 (ㄷ)을 채우시오. (30자 이내)

---

③ 성장과 불평등 사이의 인과 관계에 대한 ㉢의 관점은 ㉡에 나타난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서술하시오. (90자 이내)

---

---

### 3. 출제 의도

- 고등학교 일반사회 교육 과정에서 학습한 경제 성장, 소득 분배 등의 개념을 제재로 하는 제시문의 글을 읽고 분석할 수 있는 독서 능력을 측정함.

- 제시문과 <보기>의 글에 담긴 경제 성장, 인적 자본 형성, 교육비용, 소득 불평등, 금융 기회 사이의 연관 관계를 통해 소득 불평등의 경제 성장에 대한 영향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함.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1.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 기준	<p>(2) 공정성과 삶의 질 (다) 삶의 질과 복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을 파악한다.</p> <p>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을 찾아보고, 이를 갖추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p> <p>③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 (61쪽)</p> <p>○ 사회 교과서 '삶의 질과 복지' 단원에서 <u>경제 성장의 개념, 경제 성장과 교육 투자의 관계, 공정한 분배</u> 등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음.</p>	<p>문항 1-1, 문항 1-2</p>
2.		
과목명: 경제		관련
성취 기준 1	<p>(1)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인간 생활에서 차지하는 경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공적·사적인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한다. 시장 경제에서의 경제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제도를 경제 사회의 발전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p> <p>(라)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 제도를 파악한다. (137쪽)</p> <p>○ 경제 교과서 '경제 생활과 경제 문제의 이해' 단원에서 <u>국가의 다양한 경제 목표로서 형평성과 경제 성장</u> 등이 제시되어 있고, <u>경제 목표 간 상충 관계</u>가 언급되어 있음.</p>	<p>문항 1-1, 문항 1-2</p>
성취 기준 2	<p>(2)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가계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추구함으로써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기업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생산, 생산 비용의 절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한다는 점을 이해한다. 또, 정부의 재정 활동과 경제적 역할에 대해 알아본다.</p> <p>(라) <u>재정 활동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적 역할(효율적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 및 안정 등을 추구)을 이해한다.</u>(137쪽)</p> <p>○ 경제 교과서 '경제 주체의 역할과 의사 결정' 단원에 경제 성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진술되어 있음.</p> <p>○ 동 단원에서 가계의 경제적 역할을 논의하면서 '인적 자본'이라는 개념이 등장함.</p> <p>○ 동 단원에서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논의하면서 소득 재분배가 진술되어 있으며 재정 활동의 결정에 있어 형평성의 고려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아울러 재정의 기능으로서 소득 재분배, 경제 성장의 촉진, 교육 부문 육성 등이 제시되어 있음.</p>	<p>문항 1-1, 문항 1-2</p>
성취	(4) 국민 경제의 이해	문항

	기준 3	<p>국민 경제의 주요 지표를 활용하여 경제 상황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제 순환과 함께 경기 변동 양상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그 과정에서 <u>국민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안정과 성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고, 재정·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이해한다.</u></p> <p>(가) <u>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u>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138쪽)</p> <p>○ 경제 교과서 ‘국민 경제의 이해’ 단원에는 경제 성장의 의미, 경제 성장 요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경제 성장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소득 분배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진술되어 있음.</p> <p>○ 동 단원에는 경제 성장의 결정 요인으로서 인적 자본이 제시되어 인적 자본과 경제 성장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음.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로서의 교육, 교육의 긍정적인 경제 효과, 정부가 의무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려 인적 자본 구축을 지원할 필요성 등이 논의되고 있음.</p>	1-1, 문항 1-2
	성취 기준 4	<p>(6) 경제 생활과 금융 개인은 현재와 미래의 수입을 바탕으로 소비 지출과 저축 및 투자 등 금융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한다. 경제 생활에서 신용의 활용 사례를 통해 신용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그리고 다양한 금융 상품의 특징을 자산관리 원칙에 따라 비교해보고, 미래의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다.</p> <p>(가) 현대 경제 생활에서 금융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위하여 수입, 지출, 저축, 투자, 부채, 신용의 의미와 역할을 이해한다. (139쪽)</p> <p>○ 경제 교과서 ‘경제 생활과 금융’ 단원에는 금융과 금융 시장의 의미가 소개되어 있으며 <u>금융 거래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에게 소득 증대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음.</u></p>	문항 1-2 ②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6	83~87	문항 1-1, 문항 1-2	○
고등학교 경제	박형준 외	천재교육	2016	32~33, 51, 74, 78, 140, 142~143, 213~214	문항 1-1, 문항 1-2	○
고등학교 경제	유종열 외	비상교육	2016	42, 73, 76~77, 80, 82, 131~133, 136~139	문항 1-1, 문항 1-2	○

## 5. 문항 해설

- 제시문은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촉진한다는 종래의 견해와 이와는 달리 불평등의 심화가 성장을 저해한다는 새로운 견해를 대비시키면서 후자의 견해가 인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지를 밝히고 있음.
- 문항 1-1은 제시문의 첫 단락에서 소개한 20세기 전반기와 후반기의 불평등 양상이라는 역사적 사실 관계에 종래의 견해를 적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의 양상을 추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불평등이 20세기 전반기에 완화되었다가 후반기에 심화되었다면, 불평등의 정도가 20세기 중엽 경에 가장 낮았을 것이고 20세기 말엽 경에는 높았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음. 여기에 불평등과 성장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종래의 견해를 적용하면, 20세기 중엽에는 성장 속도가 빨랐고 20세기 말엽에는 성장 속도가 느렸을 것임을 추론할 수 있음.
- 문항 1-2의 ①은 제시문의 네 번째 단락에 나오는 소득 분배와 인적 자본 투자 사이의 간단한 수치 예를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 문항 1-2의 ②는 제시문 네 번째 단락의 수치 예에서 금융 기회에 대해 가정한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
- 문항 1-2의 ③은 제시문의 새로운 견해와 보기 글의 ㉔에 나타난 관점을 불평등과 성장 사이의 인과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새로운 견해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 인과의 방향이 분배(원인)로부터 성장(결과)으로 향하는 반면, ㉔에서는 성장이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인과의 방향이 성장(원인)으로부터 분배(결과)로 향하고 있어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음.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 속도가 20세기 중엽에는 느렸고 20세기 말엽에는 빨랐을 것이다” 혹은 “20세기 중엽에 비해 말엽에 성장 속도가 더 빨랐을 것이다”는 내용을 서술했다면 20점으로 평가함.</li> <li>* 단, 전반기/후반기라는 기간에 걸친 변화(상승, 하락, 완화, 심화, 느려짐, 빨라짐)와 중엽/말엽이라는 일정 시점의 수준(느리다, 빠르다, 심하다, 약하다)를 구분하지 않고 답안을 서술한 경우에는 제시문의 전반적인 요지를 파악하였다 하더라도 소폭 감점함. 예를 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 속도가 20세기 중엽에는 느려지고 말엽에는 빨라진다” 1-2점 감점</li> <li>- “성장 속도가 20세기 전반기에는 느리고 후반기에는 빠르다” 1-2점 감점</li> <li>- “성장 속도가 20세기 전반기에는 느려지고 후반기에는 빨라진다” 2-3점 감점</li> <li>-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4-5점 감점</li> </ul> </li> <li>* 호응 관계를 비롯한 문장 표현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1-5점 감점함. 예를 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이 촉진된다,” “경제가 저해된다” 등 다양한 표현에 대해 적절하게 감점</li> </ul> </li> </ul>	20
문항 1-2 ①	(-) , (L) 모두 맞으면 5점, 틀리면 0점.	10
문항 1-2 ②	제시문에서 정답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서 답하지 않더라도 그 의미가 동일하면 10점으로 평가함. 호응 관계를 비롯한 문장 표현을 감안하여 1-2점 감점. 단, “빈곤층은 인적 자본에 투자할 수 없다”는 답은 제시문이 아니라 <보기>의 바로 뒤에 나오는 문장이므로 0점으로 평가함.	10
문항 1-3 ③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㉔은 불평등을 성장 저해의 원인으로 보지만 ㉔은 불평등을 성장이 초래하는 결과로 보고 있음. 이와 같은 차이를 정확히 진술한 경우 20점으로 평가함. 예를 들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㉔은 부진한 성장을 불평등의 결과로, ㉔은 성장을 불평등의 원인으로 본다”</li> <li>- “㉔은 불평등 완화가 성장의 원인이라고 보고 ㉔은 성장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본다” 등과 같은</li> </ul> </li> </ul>	20

	<p>답안도 20점으로 평가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에 대한 진술과 ㉡에 대한 진술 가운데 한 가지만 정확하면 10점으로 평가함.</li> <li>* 원인과 결과라는 표현 대신에 “... 저해한다고 본 반면, ... 초래한다고 본다” 등과 같이 서술한 경우에는 1-2점 감점.</li> <li>* 단, “㉡와 달리 ㉠은 ...”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인과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지 않으면 정답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에 대해서는 점수를 줄 수 없고 ㉠에 대한 진술만 채점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함.</li> <li>* 호응 관계를 비롯한 문장 표현을 감안하여 1-2점 감점.</li> </ul>	
--	--	--

## 7. 예시 답안

- 1-1. 경제 성장 속도가 20세기 중엽에는 느렸을 것이고 20세기 말엽에는 빨랐을 것이다.  
1-2.
- ① (㉠) 14, (㉡) 7
  - ② 빈곤층은 금융 활동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없다.
  - ③ ㉡에 나타난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 성장이 초래하는 결과이지만 ㉠의 관점에 따르면 불평등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원인이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 2]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문제 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핵심개념 및 용어	사씨남정기, 반영론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처첩 제도, 김만중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명나라 때 유현의 아들 유연수는 15세에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된 후 사씨와 결혼한다. 9년이 넘도록 출산을 못하자 사씨는 유연수에게 첩을 들일 것을 권하고, 유연수는 어쩔 수 없이 교씨를 첩으로 받아들인다.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사씨도 아들 인아를 낳는다. 이에 교씨는 문객(門客) 동청 등과 짜고 사씨를 모해하고자 한다.

장주가 죽은 것을 알고 ㉠ 교씨가 대성통곡하였다. 동청이 쓴 계책을 알았으나, 일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기에 이때를 타 계책을 이루기 위해 한림[유연수]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는 분명 지난번 우리 모자를 저주한 사람이 한 짓이니, 하인들을 심문하면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림이 즉시 하인들을 큰 곤장으로 엄하게 심문했다. 교씨의 시녀인 납매가 말했다.

“제가 문밖을 지나다 보니 사부인의 시녀인 춘방과 설매가 난간 아래에서 무슨 말을 하다가 헤어졌는데 그러고 오래지 않아 이러한 변이 생겼으니, 두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납매와 입을 맞춘 설매가 말했다.

“사부인이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이르기를 ‘너희가 장주를 죽인다면 마땅히 크게 상을 내리리라.’ 하였습시다. 오늘 마침 장주가 홀로 자고 있기에 춘방이 비로소 손을 썼습시다. 저는 온몸이 떨려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교씨가 방으로 들어가 수건으로 목을 매니, 시비가 급히 구해 냈다. 이에 교씨가 말했다.

“첩은 만 번 죽어도 애석하지 않습니다만, 투기하는 부인에게 정부(情夫)가 있으니 상공에게 독수가 미칠까 걱정입니다.”

말을 마치고는 다시 목을 매니 한림이 급히 구하고서 말했다.

“장주의 죽음은 실로 천지간에 있을 수 없는 변고다. 투기하는 부인을 집안에 둔다면 반드시 조상님께서 제사상을 받지 않으시고 자손이 끊어지리라.”

다음날 한림이 유씨 집안의 친족들을 맞아들여 사씨의 전후 죄상을 모두 말하고 쫓아낼 뜻을 밝혔다. 그러나 사씨는 말과 행동이 침착하고 조금도 안색이 변하지 않았다.

(중략)

㉡ 임씨는 사씨의 추천 아래 상서[유연수]의 첩으로 유씨 문중에 들어온 뒤에는 선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상서는 목종조(穆宗朝)에 각로(閣老) 자리에 올라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황후가 사씨의 어진 덕행을 듣고 자주 불러 보니 궁궐 안 여인들이 모두 스승으로 섬겼다. 사씨와 임씨가 친자매 같이 우애 있게 지내니 집안이 화평하였다. 상서와 사씨는 해로하다가 팔십에 이르러서 함께 세상을 떠났으며, 임씨 역시 무궁한 복을 누렸다.

2-1. <보기>의 ㉔에 주목하여 윗글에서 ㉓과 대조되는 ㉒이라는 인물을 설정한 이유를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첩 제도와 관련한 갈등을 형상화한 소설로서의 『사씨남정기』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170자 이내) [40점]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 ‘반영론적 관점’은 작품과 세계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특정 시대의 현실을 반영한 산물이라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㉔ 『사씨남정기』는 조선 후기 처첩 제도와 관련한 갈등을 반영하고 있다.

\_\_\_\_\_

\_\_\_\_\_

\_\_\_\_\_

2-2. <보기>의 ㉖에 주목하여 『사씨남정기』를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한다고 할 때, 윗글의 ‘사씨’, ‘교씨’, ‘유연수’는 각각 <보기>의 누구에 대응하는가를 밝히시오. [30점]

<보기>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 중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과 작가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그간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되돌리고자 김만중이 지은 작품으로 평가되었다. 그런데 아래의 글을 참조하면, 김만중은 이와는 ㉖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사씨의 모습은 보편적 윤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현숙한 숙녀의 모습을 구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옮긴 김춘택도 사씨의 현숙함은 초(楚)나라의 충신 굴원(屈原)의 충절처럼 군자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윤리성을 띠고 있다고 보았다.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지은 시기는 숙종 재위 시에 남해의 섬에 유배 중일 때였으며, 이때 김만중은 자신이 반대당파에 의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다고 생각하였다.”

사씨 : \_\_\_\_\_, 교씨 : \_\_\_\_\_, 유연수 : \_\_\_\_\_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작품에 반영된 당대의 현실을 찾아보면서 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의도와 관련하여 작품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고전 작품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을 통해서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오늘날의 시대상황과 비교하여 작품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국어 1(문학),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고유한 생각과 취향, 가치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나 형상화 방법에서도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난다. 작품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여 작가 개인의 고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해하며, 나아가 이를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비교하여 자신의 문학 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77쪽)	문학 2-1, 2-2
성취기준 2	(8) 한국 문학 작품에 반영된 시대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작품은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대 상황을 담고 있다. 시대 상황은 작가가 처한 시대의 한계로 말미암아 저절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이 있고, 또 작가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등에 따라 작가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각시킨 것도 있다. 한국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각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의식, 인물, 배경, 표현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감상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 배경을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137쪽)		문학 2-1, 2-2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이상구 외	비상교육	2014	47	제시문	○
문학	정재찬 외	천재교과서	2014	38	문학 2-1 보기	○
문학	김윤식 외	천재교육	2014	233	문학 2-2 보기	○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사씨남정기	김만중 지음/류준경 옮김	문학동네	2014	64-157	제시문	○
<사씨남정기>를 통해 본 소설사 전반의 한 국면	류준경	국문학회	2015	7-38	문학 2-2 보기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문학	이상구 외	비상교육	2014	47-55	제시문	
문학	이승원 외	좋은책신사고	2014	192-198	제시문	
문학	김윤식 외	천재교육	2014	227-233	제시문	

## 5. 문항 해설

제시문인 『사씨남정기』는 조선 숙종 때인 17세기 후반 김만중(金萬重)에 의해 창작된 고전소설로 처첩 갈등을 다룬 가정소설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한림 유연수는 아내 사씨가 늦도록 자식을 낳지 못하자, 교씨를 첩으로 들인다. 교씨가 아들 장주를 낳고, 이어 사씨도 아들을 낳는다. 장래에 불안을 느낀 교씨는 동청·냉진 등과 짜고 사씨에게 부정(不貞)의 누명을 씌운다. 동청과 설매가 장주를 죽여 사씨의 짓이라 모함하니, 한림이 사씨를 내치고 교씨를 정실로 삼는다. 쫓겨난 사씨는 술한 시련을 겪은 뒤 수월암에 거처한다. 한림이 승상 엄승과 갈등을 빚고, 집에 머물면서 사씨의 억울함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를 눈치 챈 동청의 무고(誣告)로 한림은 유배되고, 교씨는 동청을 따라 유씨 집안을 떠난다. 특사로 풀려난 한림이 설매를 만나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이어 사씨와 상봉한다. 왕이 엄승 일파를 내치고 한림 일파를 등용하니, 동청은 처형되고 교씨는 냉진을 따라간다. 한림이 사씨를 정실로 복위시키고 교씨를 잡아 처형한 뒤, 첩 임씨를 얻어 가족이 화목하게 살아간다.

이 작품은 사대부가의 처첩 갈등을 중심축으로 하면서도 당쟁의 정치적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 유가적 이념성을 재현하고 당대인의 보편적 기대지평에 일치되는 결말 등으로 인하여 사대부들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다양한 남녀 독자층에게 폭넓게 읽혔다. 처첩 갈등형 가정소설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형성시키는 중요한 토대가 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2-1. 이 문제는 작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처첩 제도를 형상화한 소설로서의 『사씨남정기』의 한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본문에서 제시된 두 인물을 비교 분석해 보면, 악한 인물로 설정된 교씨가 처첩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선한 인물로 설정된 임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로 인해 『사씨남정기』는 처첩 제도로 인한 갈등을 개인의 성품에 근거한 것으로 돌림으로써, 처첩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2-2. 이 문제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작가가 『사씨남정기』를 창작한 의도를 새롭게 분석해 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그간, 『사씨남정기』는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을 중전에 책봉한 사건을 풍자하여 숙종의 마음을 돌리고자 지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그렇다면 작품 속 사씨는 인현왕후에, 교씨는 장희빈에, 유연수는 숙종에 대응된다. 그런데 이와는 다른 새로운 해석도 가능하다. 『사씨남정기』 속의 사씨가 단순히 현숙한 여성이 아니라 이상적인 군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김춘택 등도 사씨를 굴원(屈原)에 빗대어 사대부의 충절에 대응되는 보편적 윤리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김만중이 『사씨남정기』를 지은 시기가 남해의 섬에 유배 중일 때였으며, 이때 자신이 반대당파에 의해 모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사씨가 간직한 교씨에 의해 모함을 당해 유연수에게 쫓겨난 일은 김만중이 반대당파에 의해 모함을 받고 숙종에 의해 유배당한 일과 대응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여성이 입을 그리워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사미인곡」 등의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처럼, 사씨는 작가인 김만중에, 교씨는 반대당파에, 유연수는 숙종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문항 2-1	<p>-설정 이유(20점) : 임씨를 설정한 이유로 악한 교씨가 처첩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선한 임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추론하면 20점을 준다.  *설정 이유를 정당처럼 길게 서술하지 않고 압축적으로 서술하거나 표현이 달라도, 악한 교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이고 이와 대조적으로 선한 임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20점을 준다.</p> <p>-한계(20점) : 『사씨남정기』가 조선 후기 처첩 제도로 인한 갈등을 개인의 성품(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그 구조적(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하면 20점을 준다.  * 개인의 성품에 기인한 것으로 그려낸다는 내용이 빠진 채로(5점 감점), 처첩 제도 자체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15점을 준다.  *한계로 처첩 제도를 쉽게 용인함으로써 남성 중심적인(가부장적) 시각을 드러낸다고 하면 10점을 준다. / 한계로 순종적인 여인을 통해 처첩 제도를 용인하게 함으로써 여성의 자율성을 저해(침해)하게 된다는 내용을 쓰면 10점을 준다.  * 이밖에는 정답과의 연관성을 판단하여 점수를 준다.  * 문장구성력을 평가하여 점수를 감점한다.</p>	40
문항 2-2	<p>김만중, 반대당파(혹은 김만중의 반대당파), 숙종 세 개의 항목에 각각 10점씩 배정한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이외의 답은 오답으로 간주한다.</p>	30

## 7. 예시 답안

2-1. 임씨를 설정한 이유는 악한 교씨가 처첩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달리, 선한 임씨는 처첩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이로 인해 『사씨남정기』는 조선 후기 처첩 제도로 인한 갈등을 개인의 성품(인성)에 기인한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그 구조적(본질적)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2-2.

김만중, 반대당파(혹은 김만중의 반대당파), 숙종

[문제 3]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사회) /3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다문화, 차이의 인정, 관용, 보편적 인권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인간 삶의 토대인 문화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각각의 문화는 서로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존재하는 분리된 개체이며 동일한 기준에 따른 비교가 불가능한 실체이다. 따라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문화를 기준으로 쉽게 판단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개별 문화 현상이나 특징이 해당 문화의 전체 체계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는 각 문화의 본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중립성을 유지함으로써 그 문화의 독자적 가치나 의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시각에서 다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한 문화의 구성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에 비판적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개인’에는 구체적인 문화의 특수한 환경이 세심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기 다른 개별적인 문화 속에서 개인이 지니는 의미와 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문화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과정들에서만 요청되는, 내용 없는 개념에 머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각 문화 속 개인의 자율성에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 문화의 고유한 삶의 양식이다. 따라서 개별 문화의 특성을 그 자체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그가 속한 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율성, 특수한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양식을 그 자체로 존중하고 인정해줄 것, 즉 ‘차이의 인정’을 요구한다. 차이의 인정을 위해서는 평등한 권리에 대한 보장을 넘어 개인과 집단 각각의 자아정체성이나 문화적 정체성의 ‘내적 가치’를 그 자체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내적 가치가 인정되는 상황 속에서만 그 문화 속의 개인이 지닌 자유와 자율성이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한 문화에서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양식, 전통의 온전함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가 오히려 그 문화권 내의 개별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차이의 인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생각에 따라 평가되고 인정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개별 문화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전통과 삶의 양식의 보호는 오직 그 구성원들의 인정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개별 문화 특히 소수 문화의 생존은 생물종의 보존과 다르며, 그 구성원들의 인정과 지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변형의 힘에 의해서만 지속될 수 있다.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근거로 그 구성원이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과 자율성을 제한받게 된다면, 그 문화는 자기변형을 통한 문화 유지의 동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따라서 문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 문화 속의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원과 자유를 가져야 한다. 또한 소속된 집단의 문화가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지 않는 경우, 개인은 자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전통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이런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활동이 다양한 문화들의 존재와 유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3-1. <보기>의 ㉠와 ㉡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와 (나)의 관점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40점]

<보기>

㉠ 개인의 자율성, ㉡ 차이의 인정

3-2. <보기>에서 말하는 ‘히잡’과 ‘명예 살인’이 문화적 차이로 관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윗글에서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서술하시오. (135자 이내) [30점]

<보기>

**히잡(hijab)**은 이슬람에서 여성의 신체노출을 제한하기 위해 쓰는 가리개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히잡을 강요받지 않았던 서유럽이나 미국의 이슬람 여성은 “히잡을 쓰면서 내 몸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명예 살인(honor killing)**은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성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명예 살인의 피해자는 국제연합의 통계에서 연간 5,000명 이상에 달한다.

### 3. 출제 의도

- [문제 3] 을 출제한 의도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적 공존을 바라보는 균형되고 올바른 시각을 확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탐색해보기 위한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와 다른 문화와의 갈등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그러한 차이는 어떤 근거에서 어느 선까지 관용의 자세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인가를 고민해보기 위함이다,
- 사회와 도덕 교과 내에서 문화의 특징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문화 현상에 대한 이해와 차이의 인정 그리고 그 차이의 인정에 대한 한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에서는 모든 개개의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관용’에 입각한 생각은 인간 보편윤리를 부정하는 몰가치적인 관점으로 쉽게 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그런 위험성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단순히 인간 보편윤리에 입각해서 관용의 범위를 생각하는 것을 넘어, 문화가 유지되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문항의 두 지문은 문화적 상대성에서 비롯되는 ‘차이의 인정’이라는 점이 타문화의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는 동시에, 인류 보편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이라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문화적 차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	--

관련 성취기준	1.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나) 다양성과 관용 ①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란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상대주의적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과 인정이 필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③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60쪽)	문제 3	
	2.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5) 문화와 윤리 (라) 다문화 사회의 윤리 지구촌 시대의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관용의 태도를 바탕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수용함으로써 다문화적 시민의식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즉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윤리의 문제, 다문화에 대한 관용의 범위와 한계, 다문화의 문화적 정체성의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시각과 태도에 대해 토론한다. ① 문화의 다양성과 보편 보편 윤리의 문제 ② 다문화에 대한 존중 및 관용과 한계 ③ 다문화의 문화적 정체성 (41-42쪽)	문제 3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6	67	3-2 보기	0 (일부 인용)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6	267	3-2 보기	0 (일부 인용)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우리 속의 타자	조효래	창원대출판부	2017	112-139	제시문(가), (나)	0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6	60-73	제시문 (가), (나)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6	264-275	제시문 (가), (나)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교학사	2016	264-275	제시문 (가), (나)	0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6	210-223	제시문 (가), (나)	0

## 5. 문항 해설

문항[3-1]은 문화 상대주의의 일반적인 입장과 개별 문화 간 차이에 근거해서 그 문화 속의 개인들의 자유와 자율성이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가)와 문화의 차이는 자칫 개별 문화 속의 개인들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윤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 문화적 차이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제시문 (나)를 읽고, 그 시각의 차이점을 찾아본 후,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 그리고 ‘차이의 인정’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기술하는 문항임.

문항 [3-2]는 <보기>에서 제시된 ‘히잡’과 ‘명예 살인’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으며, 그러한 인정의 한계를 가늠하는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시문 (가)와 (나)에서 찾아서 서술하는 문항임. 특히 히잡의 경우에는 그 문화의 내적 가치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문화적 양식이지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자율성의 제약으로 보일 수 있다. 설사 일부의 시선에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문화적 양식이 그 구성원의 자발적 동의 그리고 구체적 저항을 억압받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전제가 성립된다면, 이 문화적 특징은 관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예 살인의 경우는 그 어떤 내적 가치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들더라도 인간의 보편적 윤리의 측면에서 관용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점은 주로 제시문 (나)에서 찾을 수 있다.

-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은 다문화 사회의 바라보는 문화상대주의, 문화 간 차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화 다원주의적 입장, 공동체주의적 다원주의 그리고 자유주의적 다원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입장을 바탕에 두고 제시한 내용이다. 다문화와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은 고등학교 사회 교과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며,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 등의 교과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어서 학생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에서 문화적 차이에 대한 관용을 말하고 그 이유로 문화적 상대성과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그 관용이 무조건적일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문화적 차이가 인간의 보편적 윤리를 넘어선 맹목적 윤리상대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철학적, 이론적 근거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 문항은 그것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다문화 현상을 한 번 더 생각할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3-1	<b>【제시문 (가)와 (나)가 드러내는 ‘개인의 자율성’과 ‘차이의 인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들이 (가)와 (나)에서 어떤 관련성 속에서 해명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함】</b>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가)와 (나)가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과 그 대립 쟁점에 대해 이해가 있어야 함</li> <li>▶ 요구하는 정답 문장이 &lt;보기&gt;에서 제시하는 구절이 답안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특히 단순한 선후의 관계가 아니라 한 요소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보장이 다른 요소의 진정한 의미를 획득하게 해준다는 점이 파악되어야 함. 따라서 단순히 어느 요소가 어느 요소보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도로 가(와 나)의 지문을 파악한 답안은 어느 정도 감점 요소가 있음.</li> <li>▶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은 예시 답안 참조.</li> </ul>	
3-2	<p>【제시문 (가)와 (나)에서 주로 (나) 지문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기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문제로, 관용의 인정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핵심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 인정의 범위에는 다른 고려가 필요하며 무조건적일 수는 없다는 것임. 따라서 문화적 차이를 관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때임.</li> <li>▶ ‘히잡’은 비록 개별 문화적 특수성에 기반해 다소 억압적인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개인들의 자율적 선택의 가능성이 크고, 그것을 거부하는 도전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는 ‘명예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문화적 관습과는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임. &lt;보기&gt;속의 설명도 이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둘 다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것과 둘 다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주어진 지문에 근거해서 답변한다면 감점 요소가 있는 답변임.</li> <li>▶ 위의 두 조건을 충족하는 답안은 예시 답안 참조.</li> </ul>	30

## 7. 예시 답안

### 문항 3-1

(가)는 문화의 내적 가치에 대한 차이의 인정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의 개인의 자율성이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고, (나)는 구성원들의 개인의 자율성을 먼저 보장하는 경우에만 그 내적 가치에 대한 차이의 인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 문항 3-2

히잡은 구성원들의 인정과 개인의 자율성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관용될 수 있는 것이지만, 명예 살인은 그 구성원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기본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문화적 차이이므로 관용될 수 없다.

[문제 4]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4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법과 정치
	핵심개념 및 용어	재산권, 예술의 자유, 저작자의 권리, 기본권 충돌, 기본권 제한과 한계, 소유권, 저작인격권, 동일성유지권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영업자 A는 2017년 3월경 화가 B로부터 벽화 1점의 값을 모두 지급하고, 벽화를 인도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뒤, 자신의 카페 내에 설치하였다. 그러나 카페의 고객들이 카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불평하자, A는 설치 1개월 후 벽화를 철거, 소각하였다. 아래의 (나)는 B가 주장하는 글이고, (다)는 A가 주장하는 글이다.

(나) A는 위 벽화에 물을 분사하여 벽체에서 벽화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철거하였고, 철거 과정에서 벽화를 훼손하였으며, 이후 이를 소각하였다. 이러한 벽화에 대한 철거, 훼손, 소각의 각 행위는 B가 창작한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진다.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저작인격권이라 하고, 이 권리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포함된다. 예컨대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제1항에서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예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저작권법 제1조(목적)에서는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소유권자가 저작물을 파괴한 경우 저작자가 갖는 보존의 이익과 소유권자가 갖는 파괴의 이익을 비교하고 저울질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 제1조의 일반규정에 대한 체계적 해석 등을 통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대상에 작품의 파괴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A는 B의 벽화를 떼어 내어 폐기함으로써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저작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저작물의 이용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 벽화를 영구적으로 그대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떼어내는 데 대하여 화가 B의 암묵적 양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 A가 벽화를 떼어 내는 과정에서 일부 손상이 이루어진 것은 부득이한 것이었다.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에서는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유권자 A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처분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그 권능에는 저작물을 파괴할 권리도 포함되며, 벽화의 철거, 절단 등은 폐기 과정의 일부일 뿐이므로 별도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B가 벽화에 대한 소유권을 A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대가도 지급 받은 이상, 벽화의 소유권자인 A의 그 벽화 자체에 대한 처분 행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 한편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본권 제한을 인정하면서도 그 한계를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다.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헌법에 규정된 자유권 중 경제적 자유로서의 재산권은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고, 그 재산권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유권이며 이는 우리 민법에 따라 보장되고 있다.

.....

4-1. 윗글은 A와 B가 각각 헌법에 명문화(明文化)된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본권 충돌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A와 B가 주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무엇인지 적으시오. [30점]

A: \_\_\_\_\_

B: \_\_\_\_\_ , \_\_\_\_\_

4-2. <보기>는 (나)의 입장에서 (다)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이다. <보기>를 참조하여 (다)의 입장에서 (나)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220자 이내) [40점]

<보기>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의 저작인격권을 가진다. 벽화에 대한 철거, 소각 행위는 B가 창작한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 제1조의 체계적 해석 등을 고려해 보면 동일성유지권의 침해 대상에 작품의 파괴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

\_\_\_\_\_  
 \_\_\_\_\_  
 \_\_\_\_\_

### 3. 출제 의도

실제 사례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그 충돌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함.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함. 특히 미술품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유권자와 화가의 각각의 관점에서 주장할 수 있는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 각자의 주장내용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하고자 함.

교육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실생활의 사례를 대법원 판례의 응용을 통해 접하게 함으로써 법적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여, 민주 시민으로서의 능력과 태도를 갖추고, 나아가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고력과 추론능력을 측정하고자 함.

###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사회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법과 정치/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법과 정치] (3) 헌법의 기본 원리 (가)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나)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145쪽)	제시문 (가),(나), (다)
	성취기준 2	[법과 정치] (4) 개인 생활과 법 법률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다양한 분쟁 해결 방법을 탐색한다.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관계와 불법 행	제시문 (가),(나), (다)

	<p>위에 따른 손해 배상의 종류를 사례를 통해 이해한다.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가족 및 재산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법률 관계를 탐구한다.</p> <p>(가) 민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고 계약 체결의 의미와 과정을 사례를 중심으로 탐구한다.</p> <p>(나) 일상생활에서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탐구한다. (146쪽)</p>	
성취기 준 3	<p>[사회]</p> <p>(2) 공정성과 삶의 질</p> <p>(가)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p> <p>(나)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58쪽)</p>	제시문 (가),(나),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판결문	대법원	대법원	2015	전체	제시문 및 보기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2012	전체	제시문 및 보기	○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2012	전체	제시문 및 보기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법과 정치 (Ⅲ. 헌법의 기본원리 Ⅳ. 개인 생활과 법)	김왕근 외 5인	천재교육	2016	100-109, 125, 128-131, 138-142, 159,	제시문	○
	박영경 외 5인	비상교육	2016	84-93, 115-116, 112-125	제시문	○
	손병로 외 6인	금성출판사	2016	98-111, 136-140, 146-150	제시문	○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5인	지학사	2016	44-52,	제시문	○

5. 문항 해설

- 제시문 4의 (가), (나), (다)는 헌법상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 및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와 그 한계라는 쟁점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제시한 것임. 설문은 양쪽의 입장을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고, 나아가 합리적으로 도출한 결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함.
- 세부적으로 4-1은 실제 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판결문을 기초한 유사 사례를 제시하고, 실제 사례

- 에서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 시 그 충돌하는 명문화된 헌법상 기본권이 무엇인지 확인함.
- 4-2는 헌법상 기본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 그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고양하고, 어느 한 쪽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도출한 결론을 위해, 제시된 <보기>에서의 상대방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는지 여부의 능력을 평가함.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4-1	<p>(1) 채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상 명문화 된 권리인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표현하면 각각의 권리마다 10점 부여함.</li> <li>- 각 권리가 누락될 때 마다 10점씩 감점함.</li> <li>- 유사한 답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부분 점수 5점 부여함.</li> <li>- 정확한 답과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서 1~4점까지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li> </ul> <p>(2)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문에 “A와 B가 주장하는 헌법상의 기본권(들)은 무엇인지 적으시오”라고 분명하게 묻고 있으며, “헌법에 명문화(明文化)된” 서로 다른 기본권을 주장함으로써 기본권 충돌이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li> <li>- A와 B를 바꾸어 서술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함.</li> <li>- 항목에 대한 답을 누락한 경우 0점으로 처리함.</li> <li>- 요컨대 지문은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할 경우 그 충돌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음. 그런데, 이와 달리 기본권에 대응되는 개별법(민법, 저작권법)상의 권리만을 적은 경우 상당한 감점 내지 0점으로 처리함.</li> </ul>	30
4-2	<p>(1) 채점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보기&gt;에서 제시된 (나)의 주장을 반박하는 (다)의 입장을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서술하되,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논리적으로 충실히 서술하였는지 여부 및 문장 완성도와 표현의 적절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li> <li>- 논거의 핵심을 220자 이내로 제시문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여 서술하면 40점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함</li> <li>- 유사한 취지의 논거를 제시한 경우 ±5점의 범위내에서 차등적으로 부여함.</li> <li>-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닌 이유”로서 아래 &lt;예시&gt;로 든 것들이 들어간다면 최대 5점을 더 부여할 수 있음.</li> </ul> <p>&lt;예시&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기함으로써 벽화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li> <li>: 철거, 절단 등은 폐기 과정의 일부일 뿐이므로,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아니다.</li> <li>: 벽화를 영구적으로 두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폐기에 암묵적 양해가 있었다.</li> <li>: 소유권자가 갖는 파괴의 이익이 저작자가 갖는 보존의 이익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li> <li>: 철거나 소각행위는 벽화의 내용이나 형식의 동일성을 깨뜨리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li> </ul> <p>(2) 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다)의 입장을 지지하는 논거를 제시문에서 찾아 핵심적으로 요약하지 않고, (다)에서의 표현 그대로만 인용하여 서술하거나, 상식적 차원의 답변만으로 이루어졌거나, 같은 표현을 중언하거나 부언하는 답안 등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적절성과 충실성에 비추어 차등적으로 감점 처리함.</li> <li>- 논거를 찾는 과정에서 제시문 중 (다)와 (나)를 반대로 제시하면 0점 부여함</li> </ul>	40

## 7. 예시 답안

- 4-1.  
A: 재산권  
B: 예술의 자유, 저작자의 권리

4-2.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의 내용에는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능이 있다. 그 권능에는 자신이 소유한 저작물을 파괴할 권리도 포함하므로, 벽화 폐기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헌법 제37조 제2항과 헌법 제23조 제1항 및 민법 제211조 등을 고려해 보면, 재산권 중 소유권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는 한 B가 양도한 이상 A의 벽화 처분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

## [문제 5]

### 1. 일반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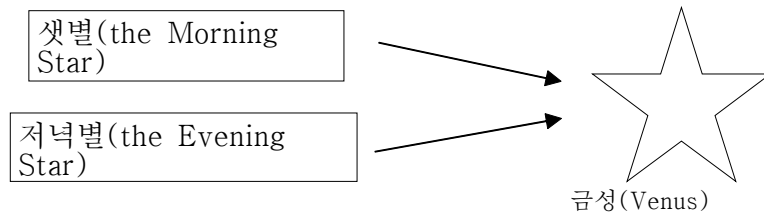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 / 5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독서와 문법
	핵심개념 및 용어	언어의 자의성, 의미, 단어의 의미관계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 2. 문항 및 제시문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프레게는 ‘의미(意味, meaning)’에는 ‘의의(意義, sense)’와 ‘지시(指示, reference)’라는 두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새별은 저녁별이다(The morning star is the evening star).”라는 명제를 예로 들면서 단어나 구가 지니는 언어 내적 의미인 ‘의의’와 단어나 구가 언어 외적으로 지시하는 ‘대상(對象, referent)’을 구분하였다. ‘새별(the Morning Star)’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의 새벽에 뜨는 특정한 별’이라는 의미를 지녔으며, ‘저녁별(the Evening Star)’은 ‘특정 지역에서 특정한 계절의 저녁에 뜨는 특정한 별’이라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두 표현의 ‘의의’는 다르다. 그러나 이 두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하다. 즉 아래 <그림 1>에 표시되어 있듯이 ‘새별’과 ‘저녁별’은 ‘금성(Venus)’이라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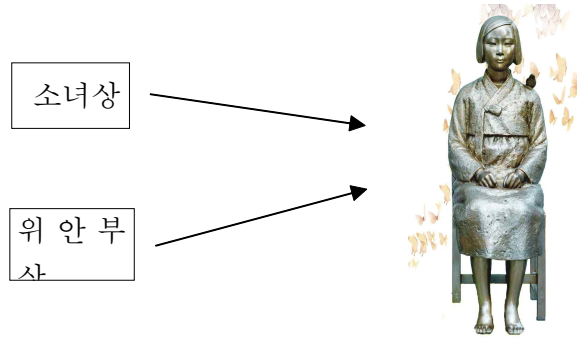
<그림 1> 표현들과 대상 간의 관계



(나) 언어의 ‘자의성(恣意性)’은 ‘특정한 대상을 그렇게 불러야 할 필연성이 없음’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관계가 ‘자의적’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불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우물에 있는 액체를 가리키면서 ‘물’, ‘water’, ‘eau’, 혹은 ‘shui’ 등과 같이 언어마다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의성’은 프레게의 이론에서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지시 관계만을 고려한 용어이다. 즉 단어나 구의 언어 내적 ‘의의’ 차원에서의 차이는 무시된 것이다. 여기서 ‘의의’ 차원의 차이는 무시되어도 좋은가라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나 구의 차이가 ‘물’, ‘water’, ‘eau’, 혹은 ‘shui’에서와 같이 ‘의의’ 차원의 차이가 가치중립적인 차이일 때는 무시되어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때는 ‘의의’ 차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다. 가령 어떤 독재국가의 최고지도자를 ‘위대한 영도자’로 부르거나 혹은 ‘극악무도한 독재자’로도 부르다면 여기서 두 구가 가리키는 대상은 동일인이지만 두 구는 매우 다른 ‘의의’를 지니게 되며 그 차이가 중요해 지는 것이다. 개인이나 단체에게 좋은 이름을 붙이고자 하는 이유, 그리고 가끔씩 개명을 하는 이유는 그 개인이나 단체가 ‘의의’ 차원의 차이에서 생겨나는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다) 서울의 일본 대사관 앞에 <그림 2>의 상이 세워졌다. 일본에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매주 수요일 열어왔으며 1,000번째 수요일 집회가 열리던 2011년 12월에 세워졌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상을 ‘평화의 소녀상’ 혹은 줄여서 ‘소녀상’이라고 부르지만 일본 정부는 굳이 ‘위안부상’이라는 명칭을 고집하고 있다. <그림 2>의 상을 놓고 한일 간에는 ‘소녀상’이냐, ‘위안부상’이냐는 ‘명칭 전쟁’이 일어났으며 이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림 2> 표현들과 대상 간의 관계



5-1. (가)를 바탕으로 다음에 답하시오. (각 55자 이내) [30점]

① “소녀상은 위안부상이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_\_\_\_\_

\_\_\_\_\_

② “소녀상은 위안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성립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_\_\_\_\_

\_\_\_\_\_

5-2. (다)의 ‘명칭 전쟁’이 일어나게 된 두 가지 근본적인 요인을 (나)에서 찾고, 각각의 요인으로 인해 ‘명칭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각 55자 이내) [30점]

① \_\_\_\_\_

\_\_\_\_\_

② \_\_\_\_\_

\_\_\_\_\_

**3. 출제 의도**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과목의 <언어의 특성>과 <단어의 의미> 부분에 나오는 ‘언어의 자의성’과 ‘단어의 의미와 의미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함. 단순한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함.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호-14호 [별책 5] “국어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독서와 문법	
	성취기준 1	(4) 언어가 갖는 특성인 기호성, 규칙성, 창조성, 사회성, 역사성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중략> 언어의 기호성은 언어가 일정한 내용을 일정한 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라는 특성이며, 이때 내용과 형식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119쪽)
	성취기준 2	(10) 단어의 의미관계와 의미 변화의 양상을 탐구하고 이해한다. 글을 이해하려면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유의 관계, 반의 관계, 상하 관계와 같은 단어의 의미 관계를 비롯하여 다의어, 동음이의어에 대해서도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한다. (121쪽)
	관련	문제 5-1-① 문제 5-2-① 문제 5-1-② 문제 5-2-②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내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독서와 문법	윤여탁 외	미래엔	2016	384	42-51, 112-121	재구성
독서와 문법	이삼형 외	지학사	2016	408	42-53, 180-187	재구성
독서와 문법	이도영 외	창비	2016	398	44-51, 116-123	재구성
독서와 문법	박영목 외	천재교육	2016	352	18-41, 82-88	재구성
독서와 문법	한철우 외	교학사	2016	383	42-51, 108-119	재구성

## 5. 문항 해설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과목의 <언어의 특성>과 <단어의 의미> 부분에 나오는 ‘언어의 자의성’과 ‘단어의 의미와 의미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였다. 문제 지문의 (가)에서는 의미가 언어 내적 ‘의의’와 언어 외적 ‘지시물’로 구성된 양면성이 있음을 설명하였다. 지문의 (나)에서는 ‘자의성’이 단어나 구와 그것이 가리키는 대상 간의 지시 관계만을 고려한 용어이며 언어 내적 ‘의의’ 차원에서 차이는 무시된 것임을 지적하고 ‘의의’ 차원의 차이도 어떤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때는 ‘의의’ 차원의 차이가 매우 중요할 수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다)에서는 (가)에서 보여준 ‘셋별’과 ‘저녁별’ 대신 논란이 되고 있는 ‘소녀상’에 대한 명칭 문제를 소개하였다. 단순한 암기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전에 응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자 하였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5-1-①	‘두 표현이 지시하는 대상이 동일함에 대한 주장’의 이해 여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여 11~15점, 6~10점, 0~5점을 부여함 (1) 우수: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간 완성된 문장 = 11 ~ 15점 (2) 양호: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완성 혹은 어색한 문장 = 6 ~ 10점 (3) 미흡: 밑줄 친 핵심 내용이 아닌 엉뚱한 문장 = 0 ~ 5점	15
5-1-②	‘두 표현의 의의 차이에 대한 주장’의 이해 여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여 11~15점, 6~10점, 0~5점을 부여함 (1) 우수: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간 완성된 문장 = 11 ~ 15점 (2) 양호: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완성 혹은 어색한 문장 = 6 ~ 10점 (3) 미흡: 밑줄 친 핵심 내용이 아닌 엉뚱한 문장 = 0 ~ 5점	15
5-2-①	자의성 때문에 복수의 이름이 허용되는 것이 문제의 발단임을 이해하는 여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여 11~15점, 6~10점, 0~5점을 부여함 (1) 우수: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간 완성된 문장 = 11 ~ 15점 (2) 양호: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완성 혹은 어색한 문장 = 6 ~ 10점 (3) 미흡: 밑줄 친 핵심 내용이 아닌 엉뚱한 문장 = 0 ~ 5점	15
5-2-②	의의 차원의 차이가 가치중립적이지 못한 것이 문제의 발단임을 이해하는지 여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으로 구분하여 11~15점, 6~10점, 0~5점을 부여함 (1) 우수: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간 완성된 문장 = 11 ~ 15점 (2) 양호: 밑줄 친 핵심 내용이 들어갔지만 미완성 혹은 어색한 문장 = 6 ~ 10점 (3) 미흡: 밑줄 친 핵심 내용이 아닌 엉뚱한 문장 = 0 ~ 5점	15

## 7. 예시 답안

% 5번 채점 시 참고 사항

- (1) 예시 답안에서 밑줄 친 부분은 핵심 내용임
- (2) 예시 답안에서 ‘/’으로 표시된 부분(예, 표현/단어/구)은 동일한 정답으로 인정함

문제 5-1-①: ‘소녀상’과 ‘위안부상’이라는 표현/단어/구가(이) 지시하는/가리키는 대상이 동일하므로 위의 주장이 성립된다.

문제 5-1-②: ‘소녀상’과 ‘위안부상’이라는 표현/단어/구의 언어 내적 ‘의의’가 다르므로 ‘위안부상’의 의의를 부정하는 위의 주장이 성립된다.

문제 5-2-①: 언어가 지닌 자의성 때문에 언어마다/사람들이 대상에 다른 이름들을 붙이는 것을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상에 다른 이름들을 붙이는 것을 막기 힘들기 때문이다’ 대신 ‘대상을 다르게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도 정답 처리함)

문제 5-2-②: ‘의의’ 차원의 차이가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므로 더 선호하는/유리한 표현을 쓰길 원하기 때문이다. (‘더 선호하는/유리한 표현을 쓰길 원하기 때문이다’ 대신 ‘의의 차이가 매우 중요해짐’도 정답 처리함.)

[문제 6]

1. 일반정보

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논술고사 <input type="checkbox"/>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논술(AAT) 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생활과 윤리)/6번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핵심개념 및 용어	과학의 객관성, 일반법칙, 문학, 역사
예상 소요 시간	전체 시험시간 100분 중 15분	

2. 문항 및 제시문

[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가) 근대 과학의 탄생 이후 많은 학자들은 올바른 탐구의 기준을 과학에 두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적 지식이 엄밀한 객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객관성이란, 하나의 사실에 동일한 조건만 주어지면 누가 관찰하고 실험하든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과학은 개인의 감정, 가치판단, 선입견 또는 지적 배경과 무관하게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달될 수 있는 가치중립적 지식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과학은 개별적인 것에 관한 탐구로부터 출발하지만 개별적인 것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반복적인 관찰과 실험을 토대로 일반법칙을 이끌어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과학적 방법은 자연과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과학, 심리학 등 다른 영역의 학문에도 적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인문학, 윤리학, 신학 등과 같은 학문의 대상에도 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인간의 정신 활동과 역사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 현상과 같이 필연적인 인과 관계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편견은 물론, 초자연적인 힘 또는 형이상학적 가정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인 설명, 기술, 예견 등이 가능한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 시 또는 문학 작품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일반법칙을 통한 인과적 설명과 예측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한 편의 시가 일반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경우에는 그 작품 자체의 내용이 훼손될 수도 있다. 오히려 작자와 독자는 작품 하나하나의 고유한 의미에 더 관심을 가진다. 작품은 인간 정신의 산물로서 객관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다. 그것은 주관적 체험을 통해 더 잘 이해되고 공감될 수 있다. 문학과 다른 영역에 속하는 역사도 이와 유사한 점이 있다. 역사적 사건도 일회적이며 특수한 것이므로 그것을 어떤 일반법칙으로 환원시켜 설명하고자 한다면 그 사건이 지니는 특성은 오히려 간과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는 혁명의 일반적인 성격보다는 1789년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자체와 1917년에 발생한 러시아 혁명 자체가 지니는 고유하고 개별적인 성격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에 대한 접근 방식은 사회적이고 윤리적인 가치판단이 배제된 과학적 가치중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속한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관찰자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정신을 통해 재구성되어야 한다. 나아가 인간의 정신 활동이 투영된 작품이나 인간 삶의 역사를 파악하는 학문은 과학적 객관성보다는 주관의 체험을 넘어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

6-1. ㉑에 따르면 역사적 사건도 자연과학적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반법칙을 통해 어떤 사건의 과거와 미래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험펠(C. Hempel)은 <보기>의 방법으로 설명한다. <보기>에서 제시한 기호 E, C, L을 ( )에 넣어 설명을 완성하시오. [20점]

<보기>

설명은 언제나 두 전제, 일반법칙과 초기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즉, 어떤 사건(E)에 대한 설명은 초기조건(C)과 경험적으로 검증된 어떤 일반법칙(L)을 말하는 진술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라디에이터가 터졌다'는 사건을 설명하려면 먼저 '라디에이터에 물이 들어있었다', '기온이 0°C 이하로 내려갔다'와 같은 초기조건과 그와 관련된 '물은 0°C 이하에서 언다', '물이 얼 때 압력이 증가한다'와 같은 일반법칙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사건을 일어나게 한 과거의 원인을 알려면 ㉒( ), ( )로부터 ㉓( )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반대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을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알고 있는 ㉔( ), ( )로부터 ㉕( )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㉒ (     ), (     )     ㉓ (     )  
 ㉔ (     ), (     )     ㉕ (     )

6-2.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각 110자 이내) [50점]

① (가)와 (나)는 학문의 서로 다른 방법을 주장한다. '개별적인 것' 혹은 '일회적이고 특수한 것'에 대한 접근 방식과 그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이 (가)와 (나)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서술하시오.

② (가)와 (나)는 '가치중립'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 (나)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과학과 인문학의 방법과 목적을 몇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 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제되었음. 이를 위해 가치중립성을 추구하는 과학의 객관성과 일반법칙을 이끌어내는 과학의 특성, 그리고 체험과 공감, 그리고 보편적 이해를 추구하는 인문학의 특성을 제시하여 양자의 핵심적인 차이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 특히 역사학의 관점에서 과학적 사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도록 함.

#### 4. 출제 근거

#####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14호[별책 6] “도덕과 교육과정”	
관련 성취기준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p>성취기준 1</p> <p>(3)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가) 과학 기술과 윤리 과학 기술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성과와 과학 기술이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를 객관적으로 이해한다. 또한 과학 기술의 본질과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구현 및 삶의 질 향상에 있음을 인식하여 과학 기술에 대한 건전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확립한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적 문제를 조사·분석하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요구되는 과학 기술의 윤리적 책임에 대하여 탐구한다. ① 과학 기술의 본질과 윤리의 관계 ② 과학 기술의 성과와 윤리적 문제 ③ 과학 기술의 윤리적 과제와 책임 윤리 (38쪽)</p>	<p>이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1-3학년 도덕과 교육 과정과 관련된다.</p> <p>(4) 자연·초월적 존재와의 관계 (다) 과학기술과 도덕 현대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과학 기술의 가치와 한계를 인식하고,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자의 도덕적 책임 문제를 인식하며, 과학 기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과학 기술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제시한다. ① 과학 기술이 현대인의 삶에 끼친 영향 ② 과학 기술과 과학자의 가치중립성에 관한 비판적 인식 ③ 생명 과학의 윤리적 측면과 바람직한 활용</p>

#####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역사철학(번역자료)	W.H. 윌쉬	서광사	1990	30-62	제시문(가) “역사와 과학”	○
역사철학의 이해	남청	한길사	2002	26-30, 116-118	제시문(나) 및 <보기>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남궁달화 외 6인	교학사	2013	112-121	제시문(가)	○
생활과 윤리	손동현 외 6인	(주) 미래엔	2011	178-180	제시문(나)	○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11인	(주) 미래엔	2013	110-112	제시문(가)	○

## 5. 문항 해설

이 문항은 과학과 인문학의 학문적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인문학, 특히 역사학의 관점에서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해 어떤 비판이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문제이다. 이를 위해 두 입장을 나타내는 글이 제시되었다.

(가)의 제시문은 과학적 객관성과 이를 위해 과학이 적용하는 방법 및 추구하는 목적, 그리고 다른 학문에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려는 시도에 대해 기술한 글이다. (나)는 문학과 역사와 같은 인문학이 다루는 대상의 특징 및 접근방식, 그리고 과학적 객관성과 다르게 이러한 학문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대해 기술한 글이다.

<6-1>의 문제는 역사적 사건도 인과적 관계를 통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이론이 역사적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제시한 사례에 따라 일반법칙과 현재 사건으로부터 초기사건, 즉 과거를 이끌어내고, 초기사건과 일반법칙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하는 추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6-2-1>의 문제는 과학과 인문학의 방법론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개별적인 것을 대하는 태도와 그 접근방식, 그리고 그로부터 이끌어내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이를 논술하는 것이다.

<6-2-2>의 문제는 가치중립성을 주장하는 과학적 객관성에 대해 역사학의 관점에서 어떤 비판이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6-1	<p>제시문 (가)에서 기술한 과학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lt;보기&gt;의 설명 방법을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는 추론능력에 따라 채점기준이 정해진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술들의 연결이 괄호 안에 기호를 넣어 정확하게 제시되면 각 20점이 주어진다.</li> <li>- ㉠, ㉡, ㉢, ㉣에 각각 5점이 배정됨</li> <li>- 두 개의 괄호가 있는 ㉠와 ㉢의 경우에는 괄호 하나 당 2.5점이 배정됨.</li> </ul>	20
6-2-1	<p>제시문 (가)와 (나)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한 태도 및 접근방식과 목적의 차이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 (가)에서 &lt;개별적인 것을 한 사례로 보고&gt; &lt;반복적인 관찰을 통해&gt; &lt;일반법칙&gt;을 이끌어 낸다는 내용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에는 10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에는 2점씩 감점)</li> <li>- 제시문 (나)에서 &lt;개별적인 것 자체에 대한&gt; &lt;주관적 체험을 통해&gt; &lt;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gt; &lt;보편적 이해&gt;를 언급자하는 입장이 분명하고 충분히 기술되었을 경우에는 10점 (주요개념이 빠진 경우에는 2점씩 감점)</li> <li>-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이 잘 드러날 경우에는 5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2점씩 감점</li> </ul>	25
6-2-2	<p>제시문 (가)와 (나)에서 가치중립에 대해 두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한 후 (나)의 입장에서 (가)를 비판하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했는가를 평가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가)는 가치중립을 주장하지만 (나)는 가치중립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10점을 준다. 그렇지 않고 한 입장만 맞을 경우에는 5점을 부여함</li> <li>- 제시문 (나)의 입장에서 &lt;인간이 역사적 존재&gt;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성을 가질 수 없다는 근거를 제시할 경우에는 10점을 준다. &lt;인간이 역사적 존재&gt;라는 내용과 관련된 비판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li> <li>- 논리적 연결 및 표현의 적합성이 잘 드러날 경우에는 5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2점씩 감점</li> </ul>	25

## 7. 예시 답안

6-1.

㉠ ( E ), ( L )    ㉡ ( C ) ㉢ ( C ), ( L )    ㉣ ( E )

6-2-1

(가)는 개별적인 것을 한 사례로 보고 반복적인 관찰을 통해 일반법칙을 이끌어내고 (나)는 개별적인 것 자체에 대한 주관적 체험을 통해 타자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이해를 얻고자 한다.

6-2-2

(가)는 가치중립을 주장하지만 (나)는 가치중립을 인정하지 않는다. (나)의 입장에서 (가)의 입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는 인간은 그가 속한 역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